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년)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 모임

단 체 명	일 시	장 소
성체분배자회	3월 31일(일) 교중미사 후	성체조배실
제대헌화회	4월 02일(화) 10:30	2교실
자녀를 위한 기도	4월 05일(금) 19:40	1교실
성모성심회	4월 06일(토) 17:30	강당
위령봉사회	4월 07일(일) 11:40	강당
M.E.	4월 07일(일) 11:50	6교실

● 성주간 전례 일정 안내

3월 28일(목)	저녁 8시	주님 만찬 미사
3월 29일(금) 금욕, 금식	오후 3시	십자가의 길
	저녁 8시	주님 수난 예식
	※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	
3월 30일(토)	저녁 8시	부활 성야 미사 (사순 실천 봉헌 봉투 제출)
3월 31일(일) 부활 대축일	06:30, 10:30(교중) ※ 오후 12시, 오후 7시, 주일학교, 중고등부 미사는 없습니다.	

- * 성삼일(3월28일~30일)동안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 부활절 행사 관계로 3월 30일(토) 오후 1시부터 3월 31일(일) 오후 5시까지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 견진성사 신청 및 접수

- 견진성사 : 6월 8일(토) 오전11시, 대성전
- 교육기간 : 4월 12일(금)~6월 7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40분(8주차 교육)
- 접수기간 : 3월 10일(일)~4월 7일(금), 사무실
- 2023년 12월말까지 세례받으신 분(15세 이상)

● 예비신자 교리반 신청

- 주일반(일, 오전 9시), 평일반(화, 오후 8시)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 십자가의 길 (월~금요일 아침, 저녁)

- 사순 기간 동안 매일 아침(05:50), 저녁(18:20) '십자가의 길' 전례 담당은 전례 봉사자가 합니다.

* '십자가의 길' 담당구역 *

3/25(월)	3/26(화)	3/27(수)
5구역	6구역	7구역

● 알림

- 오늘은 사순절 이웃돕기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 3월 31일(일), 교중미사중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 다음 주일(3/31)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없음	청소	없음
------	----	----	----

● 우리들의 정성(3월 13일 ~ 19일)

- 교무금 5,425,000 원
- 주일헌금 5,126,100 원
- 오라토리요 2차헌금 2,161,000 원

- 감사헌금
지경자 3만원 오성환10만원 박상덕30만원
손삼순 5만원 김진수30만원 김종란20만원
이균성50만원 성명기50만원 김정분10만원
김희영30만원 정영순 5만원 김상우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3/24	권태희	이응남	도현만	최웅조	민옥경
3/31	구민서	오성환	김영균	김덕영	정연희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3/24	오광운	하재민	최승일	장인홍	최창열
3/31	-	박형순	박용환	오광운	-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찬미 받으소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79. 열린 의사소통 체계로 구성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형태의 관계와 참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초월성에 열려 있고 그 안에서 발전한다는 생각으로 이끕니다. 신앙은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것의 의미와 신비한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지성을 사물의 긍정적 발전에 쓸 수도 있지만, 새로운 악, 새로운 고통의 원인, 실질적인 퇴보를 가중시키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를 긴장되고 극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인간 역사는 자유, 성장, 구원, 사랑 안에서 전개되거나 타락과 상호 파괴의 길로 전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활동으로 자연 보호의 의무를 상기시켜 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류가 자멸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80. 그러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바라시며 우리의 협력을 기대하시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저지른 악행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한 정신에 합당한 무한한 창조력을 소유하시어 가장 복잡하고 풀 수 없는 인간 문제의 매듭을 푸는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발전해야 하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께서서는 어느 정도 자제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이나 위험 또는 고통의 원천으로 여기는 많은 것들은 사실 우리가 창조주께 협력하도록 이끄는 산고의 일부가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피조물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시면서 모든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에 현존하시어 현세 사물의 합당한 자율성을 가져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현존은 모든 존재의 생존과 성장을 보장해 주며, “창조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갑니다.” 하느님의 성령께서 이 세상을 가능성으로 가득 채우셨기에 사물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언제나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사물 안에 숨겨진 어떤 예술, 곧 하느님 예술의 이성애 다름 없습니다. 이 이성을 통하여 사물은 특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는 마치 배를 만드는 사람이 나무에 스스로 배의 형상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81. 우리가 진화 과정을 추정할 수 있지만, 인간은 다른 열린 체계들의 진화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고유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격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서 다른 이들과 대화하고 하느님과의 직접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찰, 논증, 창의성, 해석, 예술 활동 능력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른 능력들과 더불어 물리학과 생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고유함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물질세계 안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등장 한데에 따른 질적인 새로움은 하느님의 직접적 행위를 전제로 하고, 또한 생명으로 이끄시며 [하느님이신] ‘당신 (Tu)과 [인간인] ’너’(tu)가 맺는 관계로 이끄시는 특별한 부르심을 전제로 합니다. 창조에 관한 성경 이야기는 모든 인간이 객체의 지위로 격하될 수 없는 주체임을 알게 해 줍니다.